

지역 매 아 리

지평선학당 중3대상진로진학캠프 열어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박준배)은 6일 내고장학교보내기 목적달성을 위해 지평선학당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진학캠프를 지평선학당에서 가졌다. 이번 캠프는 김제사랑장학재단과 지평선학당 운영업체인 (주)키움에듀에서 공동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시점에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하는지?', '적성과 성격에 맞는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특히 진로골든벨, 꿈중심날리기 등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새로운 분야에 대해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도 가졌다.

또한 관내 덕안고와 김제고, 김제여고 선생님으로부터 학교소개 및 교과과정, 고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아리 홍보활동을 통해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 흥미를 끌기도 했다.

진로·진학 캠프에 참가한 한 학생은 "이번 캠프를 통해서 관내고 진학이 대입전형에서 유리한 이유를 제대로 알게 되었고, 진로 선택은 다양한 적성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미래비전 등을 모두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행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올해 농업 직불금

66억2800만원 지급

완주군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개시에 들어갔다. 6일 완주군은 지난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1만2842명에게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66억28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150여명이 늘어난 숫자다. 쌀 고정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논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올해 8062명에게 54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밭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밭고정직불금은 전년에 비해 ha당 5만원이 인상된 평균 55만원으로 4637명에게 11억6300만원이 지급된다.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직불금도 전년에 비해 5만 원이 인상된 ha당 65만원으로 143명에게 4500만원이 지급된다.

한형순 완주군농업기술센터 팀장은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자는 전년대비 150여명이 증가했다"며 "이번 직불금 지급을 통해 잇따른 태풍피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의 농가상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인구정책 지원사업 홍보 박차

김제시, '인구정책 지원조례' 제정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갈수록 감소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7일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인구정책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최근 평생학습 한마당행사, 농업기술센터 직원 직무교육, 농기계 박람회장 등을 방문하여 시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지원내용은 전입자에게 1년 후 1인당 20만원의 전입장려금 지급, 2명 이상 동시에 전입한 세대에게 세대당 30만원의 전입이사비 지급, 국적취득자에게 1인당 100만원을 국적취득 정착지원금 지급, 인구유입 실적이 있는 유공기관에 전입 실적에 따라 전입지원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며 또한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3회에 걸쳐 500만원의 결혼축하금 지급, 무주택 청년부부에게 세대당 매월 10만원씩 3년간 청년주택수당 지급,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또는 청년들에게 세대당 연200만원 한도, 최대 7년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하고 있다.

이밖에도 청년 인턴사원제, 다자녀



김제시는 최근 평생학습 한마당행사, 농업기술센터 직원 직무교육, 농기계 박람회장 등을 방문하여 인구정책 지원사업 홍보를 진행했다.

세대채용 우대, 입주기업 출퇴근버스 운영 지원 등이 있으며, 기존에 시행 하였던 출산장려금, 귀농 귀촌 지원 사업,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등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김제시는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인구감소에 따른 유관기관 공동대응 업무협약, 내 고장 주소 갖기 캠페인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통장 회의 개최 읍면동 방문홍보 시

김제시 주거정책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박준배 시장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인구 늘리기를 김제시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관내 학교·유관기관 및 기업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김제시 인구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손안나 작가 '완주를 걷다 골목을 걷다'

오늘 누에아트홀 중앙홀서 출간기념회 열어

손안나 작가의 '완주를 걷다. 골목을 걷다' 출간기념회가 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에아트홀 중앙홀에서 열린다.

완주 곳곳에 있는 특별한 골목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역사와 인문학을 이야기하는 손안나의 완주 여행기를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이다.

'완주를 걷다. 골목을 걷다'는 완주의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골목 중에서 골목답사 프로그램을 주제로 선택하고 기록했다. 완주군민기자인 엄마가 글을 쓰고, 디자인을 공부하는 딸이 사진을 찍으며 함께 걸으며, 많은 사람들이 '완주(完州)를 완주(完走)하고 싶다'라는 의욕을 불어넣고 자 한다. 완주정신을 기리는 특별한 길 3곳과 옛 추억을 소환하고 그곳에서만 할 수 있는 체험거리가 있는 6개의 골목 소개를 담고 있다.

7일 출간기념회는 분남아파트(커피 세레머니)라는 생소하지만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분남아파트는 에티오피아의

커피 마시는 예절로 우리나라의 다도와 비슷하다. 넉넉하게 출간 기념회의 시간을 갖는 만큼 커피를 마시면서 책 이야기, 완주의 골목이야기, 만경강이야기, 사는 이야기 등등을 나누고자 한다. 이날 손안나 작가의 책에서 영감을 받은 박경훈 작곡가의 만경(萬頃)곡도 처음으로 공개되며, 출간 기념회가 진행되는 내내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손안나 작가는 "지역의 저평가 되어 있는 역사, 문화, 생태 등 자원을 발굴하고 스토리텔링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방법을 인문학적으로 찾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완주(完州)를 완주(完走)하며, 이야기가 있고 골목이 있어 아름다운 완주를 제대로 느낄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완주를 걷다. 골목을 걷다'는 완주문화재단의 '2019예술인 창작 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으며, 출간기념회에 오시는 분들께는 특별히 책을 선물로 증정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준비 만전

공공급식센터 전직원 대상 푸드플랜 교육

완주군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 공공급식센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6일 완주군 공공급식지원센터(센터장 박봉산)는 지난 5일 소속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주)지역파트너플러스 나영삼 본부장을 초빙해 푸드플랜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급식지원센터의 준비 대응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완주군이 지역 먹거리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해 공공급식지원센터 직원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추진 사항을 점검해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나영삼 본부장은 "푸드플랜은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통합적인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생

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미래세대인 아이들에 대한 식농 교육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봉산 센터장은 "직원들의 역량과 노력이 지역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완주군 먹거리 정책 방향에 맞춰 능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을 빈틈 없이 완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올해만 다섯 차례에 걸쳐 푸드플랜 사업 수행을 위한 직원마인드 교육, 농산물 안전관리 교육, 수확 후 저장 기술, 현장 견학 등 분야별 전문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회계·계약·사업 담당 공무원 실무 교육 실시

김제시는 6일 회계·계약·사업 담당공무원 및 신규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회계실무 전문성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회계 실무 교육은 투명한 회계환경 조성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금년에는 계약실무에 초점을 맞춰 교육을 추진하였고 아울러, 회계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할 감사사례를 현장감 있게 전달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였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조대정 전남도청 감사관실 컨설팅감사팀장은 행정안전부와 전남도청에서의 대견간의 계약·감사분야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실무자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전달함으로써 호응을 얻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능 전·후 상담 주간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안정망 중추기관인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현영삼, 이하 센터)는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맞아 '2019년도 수능대비 상담주간'을 운영한다.

수능을 앞둔 우리나라 고3 수험생들은 긴장감과 압박감에 과도한 스트레스 상태에 노출되어 있으며, 수능이 끝난 후에는 좌절감, 패배감, 또는 해방감에 유해요소 출입 등 비행의 유혹에 흔들리기도 한다.

센터는 위기청소년 발견 가능성이 높은 수능 전·후 11월 한 달간을

'고위기 기간'으로 정하고 불안감·스트레스 해소, 진학·진로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동반자(청소년전문상담사)를 활용한 전문상담 △또래상담 △생명사랑·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 △청소년진로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김제시청, 김제경찰서, 김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연합하여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내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별 수행기관 선정

완주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2020년도 권역별 수행기관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완주군은 지난 5일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5개 권역별 수행기관 선정했다. 선정 수행기관은 1권역(삼례읍) 완주지역지원센터, 2권역(봉동읍, 용진읍) 용진노인복지센터, 3권역(상관면, 소양면, 동상면) 예은노인복지센터, 4권역(이서면, 구이면) 구이노인

복지센터, 5권역(고성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경천면) 완주노인복지센터다. 이들 기관들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운영을 맡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 돌봄서비스의 단순한 안부확인·가사지원 중심의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평선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